

제주의 무릉도원

제주에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자연마을이 많다. 그중에서도 옛 중국고사의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꿈꾸며 평화로운 마을로 바뀌어나가는 무릉도원 마을의 모습에서 평화의 섬 제주의 참모습을 엿본다.



도원로 |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3051-1 ~ 대정읍 신도리 1052(약 4.5km)

무릉중앙로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2905-2 ~ 대정읍 무릉리 3881(약 2.1km)

무릉도원로 |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499 ~ 대정읍 신도리 57(약 2.8km)

비자낭로 |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876-11 ~ 대정읍 신도리 2073-9(약 0.4km)

도원황토로 |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797-10 ~ 대정읍 신도리 6(약 3.7km)

도원남로 |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412-3 ~ 대정읍 신도리 1494-1(약 2.1km)

무릉전지로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460-3 ~ 대정읍 무릉리 3102-1(약 0.9km)

무릉사장로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131-1 ~ 대정읍 무릉리 3799-1(약 4.7km)

무릉송당로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2868-8 ~ 대정읍 무릉리 1158(약 3km)

서삼중로 |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960-1 ~ 대정읍 신도리 1830-7(약 2.8km)

도원로 / 무릉중앙로 / 무릉도원로 | 무릉도원마을

도원로는 신도리의 중심도로이다. 이 길은 신도포구에서 시작해 신도리 마을 안을 지나 제주시와 경계를 이루는 칠전로까지 이어진다. 서귀포시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신도리의 옛 이름은 둔포리(屯浦里)라 불렸다고 한다. 그러다 대정현감이 마을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도원리(桃源里)로 바꾸게 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신도리(新桃源里)로 다시 한 번 바뀌었다. 신도리는 제주의 서쪽 해안을 끼고 있는 마을이다. 조선 중기에는 이 해안으로 유배인 이세번이 들어오기도 했다. 유배인들은 화북 또는 조천포구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해류의 영향 때문인지 그는 신도포구로 제주에 들어와 대정현에서 7년 동안 유배생활을 했다. 이세번은 해배가 된 후에도 제주를 떠나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는데 힘썼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고부이씨 입도조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도 제주에 정착해서 고부이씨 일가를 이루었다.



무릉리, 신도리

신도리 남쪽에는 무릉리가 위치해 있다. 무릉리 마을의 중심도로인 **무릉중앙로**는 무릉초등학교에서 바닷가로 향해 노을해안로까지 이어진다. 이 길은 일자로 곧게 뻗은 길처럼 희망적인 미래를 염원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무릉리의 예전 이름은 구기자 나무가 많은 마을이란 뜻으로 구목리(枸木里)였다고 한다. 그러다 옆 마을인 둔포리가 도원리로 이름을 바꾸자 중국의 시인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에 착안해서 무릉리(武陵里)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무릉도원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평화로운 낙원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름을 통해 평화로운 마을이 되기를 꿈꾸었을 것이다. 신도리에서 무릉리로 향하는 길은 이런 두 마을의 이름의 유래를 반영해서 **무릉도원로**라 이름을 붙였다.

비자낭로 / 도원항토로 | 비자낭과 황토

신도리 북쪽의 일주서로에서 갈라지는 **비자낭로**는 신도3리 리사무소를 지나 도원중로로 이어진다. 신도리는 1리, 2리, 3리로 나뉘져 있는데 이 중 신도3리 마을을 비자동이라고 부른다. 이 이름은 이곳에 비자나무가 많았다는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비자는 예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약재로 많이 쓰였다. 그리고 살충제나 변비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

다. 동의보감에도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여서 제주에서는 비자를 왕에게 진상했다고 전한다.

신도리의 넓은 밭들을 지나면서 일주서로와 중산간서로를 잇는 **도원황토로**는 도로 주위 땅이 황토가 많아 천연 자연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황토는 피부미용에 좋고, 항균작용을 하며 습도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 옛날에는 초가집을 지을 때 황토를 사용했다. 집의 외벽은 돌과 흙을 차례대로 쌓아 올리고, 안쪽 벽은 황토에 여러 가지를 섞어 반죽한 황토흙으로 마감했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습기를 잡아주는 황토 덕분에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습기를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만든 초가집에서 역센 제주의 바람을 이겨내고 돈독한 가족애를 만들어 나갔다.

도원남로 / 무릉전지로 | 녹남봉과 보름이오름



녹남봉

도원남로는 노을해안로에서 신도1리로 이어진다. **도원남로** 인근에서는 녹남봉을 만날 수 있다. 예전에 이 오름에 녹나무가 많아서 녹남봉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지금은 녹나무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오름은 그리 높지 않아 정상까지 금방 도착할 수 있다. 정상에서는 서쪽 바다의 모습이 아스라이 보인다. 이곳에서도 일본군의 흔적인 갯도진지를 확인할 수 있다. 녹나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 나무이기도 하다. 각박한 땅이나 바위틈에서도 잘 자라는 녹나무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끈끈하게 삶을 이어온 제주

도민들의 근면과 소박, 그리고 인내심을, 봄에 피어나는 화려한 꽃은 제주도민의 뜨거운 정열과 번영의 기상을, 짙은 향기가 사귀를 몰아낸다는 전설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제주도민의 얼을 상징한다고 한다.

녹남봉 남쪽 신도1리 교차로에서 시작되는 **무릉전지로**는 무릉중앙로까지 이어진다. 무릉전지로는 무릉리의 전지동 마을길로 앞을 내다본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지동은 예전에 도원리의 앞마루 동산이라 불렀는데 이후 한자로 표기하면서 전지동(前旨洞)이 되었다고 한다. 무릉전지로 인근에는 보름이오름이 있다. 보르미라고도 불리는 이 오름은 보름달 같이 둥굴다는 의미와 사람들이 보름달을 맞이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함께 전

해온다. 이 오름은 10분 정도면 오를 수 있는 아담한 오름이다. 그래도 대부분 평야지대인 주변에서 이 오름만 높이 솟아있어 마을제와 기우제들을 지내기도 했다고 한다. .

무릉사장로 / 무릉송당로 | 사장동과 송당물

무릉중앙로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무릉사장로**는 무릉리 사장동의 마을길이다. 사장이란 이름에서 보듯이 활을 쏘던 장소가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무릉초등학교 주변에 쓸대라고 불리는 과녁을 세워놓고 사장동에서 활을 쏘아 맞추면서 연습을 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 주변을 쓸대왓이라고 불렀다. 무릉 지역은 물웅덩이가 곳곳에 있어 야생동물이 많이 살았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정현감이 사냥을 하러 다니기도 했다. 사람들은 꽃자왓과 같이 숲이 우거진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장동에서 연습한 활숨씨를 뽐내곤 했을 것이다.

무릉1리교차로에서 중산간도로까지 이어지는 **무릉송당로**는 무릉 사람들이 사용하던 송당물이 있었던 곳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물 주변에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송당물이라 했다고 한다. 예전에 무릉1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물을 식수로 사용했었다. 아쉽게도 지금은 매립이 되어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서삼중로 | 모동장

서삼중로는 영락리에서 신도리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예전에는 영락리와 무릉리, 신도리를 합쳐 서삼리라 불렀다. 서쪽에 있는 세 개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이 세 마을에 걸쳐 모동장이란 국영목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중 신도리에 있던 것을 서장, 무릉리에 있던 것을 중장, 영락리에 있던 것을 남장이라 했다. 처음에는 말 위주로 키우다가 가파도의 목장을 폐쇄하면서 이곳으로 오게 된 흑우도 함께 길러 말은 군마로 흑우는 육용으로 국가에 진상했다고 한다.